

강원도내 자치단체 건강증진 인력 수요 예측을 위한 기초조사

최은희*, 남은우**, 이봉희***, 김월호****, 이경우*****

*연세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 **연세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 ***강원발전연구원,
****강릉원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한림대학교 대학원 사회의학교실

■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에서도 의료시장 글로벌화에 따라서, 의료관광 및 건강증진비즈니스 사업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도내 새로운 고부가 가치 산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국내 최대 관광자원을 활용한 건강증진비즈니스 업무를 담당할 건강증진인력의 수요를 예측하고자 한다. 단, 여기에서의 건강증진인력은 기존의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인력과는 다른 의미의 건강증진서비스 인력이다.

■ 연구방법

- 1) 문헌조사 : 국내외 문헌연구, 강원도내 5개 대학에서 작성한 강원권 선도산업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일본인 대상 의료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등의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한다.
- 2) 설문조사 및 전화 인터뷰 : 강원도 18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실(과)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도내 시군자치단체에 건강증진비즈니스 사업 추진 여부 및 향후 건강증진 인력 활용 계획에 대한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일시는 2009년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이고, 설문지 회수율은 61.1%였다.

■ 연구결과

설문에 응답한 11개 자치단체 모두 건강증진비즈니스에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고, 특화 사업은 레저, 건강증진, 휘트니스, 온천요법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건강증진 비즈니스 담당 인력이 한 명도 없는 자치단체가 54.5%였고, 건강증진비즈니스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여부는 72.7%가 있거나 수립 중이었다.

건강증진비즈니스 인력(예: 보건교육사,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 채용의사는 63.6%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채용 인원은 1~2명이 71.4%였다. 건강증진비즈니스 능력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81.8%가 참여할 의향이 있었고, 인력 양성시 건강증진, 경영마인드 및 서비스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결론 및 제언

자치단체에도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담당할 건강증진서비스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치단체에 건강증진비즈니스의 이론교육 및 실무 교육과정 등 교육기회가 제공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건강증진 인력 양성시 필요한 재원은 지식경제부의 선도사업 재원에 의한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연수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동북아 4개국(일본, 중국, 극동러시아, 몽고)에 대한 방문 연수가 중요하며,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건교육사 등의 새로운 건강증진서비스 인력은 보건의료 분야 뿐만 아니라, 웰빙 산업 분야, 일반행정 분야, 지식경제산업 분야, 의료관광 분야로까지 그의 직무영역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